

노인문제와 기독교사회복지 프로그램

김동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I. 서론

사회적 약자가 되는 이유는 본인의 무능과 잘못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사회적 약자도 인간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그것을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살기 좋은 사회란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호와 자립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제도를 갖춘 사회를 말한다.

노인복지를 생각할 때 우선 떠오르는 생각은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뭔가 투자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쓸데없는 낭비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노인은 가정에서 모시든지, 돌볼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최소한으로 보호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이러한 견해는 인간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이렇다 할 효용가치가 없는 노인이라 해서 그들을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오히려 편견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만다.

사실 노인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동서고금을 통해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 정보화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그 인식은 더 악화되어 가는 현상을 보인다. 물질문명의 이점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 자랑인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하루종일 실밥을 뜯어 5,000원을 버는 공동작업장의 노인들, 경로식당에 다니기도 어려울 만큼 거동불편하지만 무료노인시설에 가는 것은 한사코 거부하는 독거노인들, 자식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지만 마땅히 할 일이 없어 하루종일 하릴없이 앉아 있는 도시공원의 노인들이 다수 있으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노인문제는 보통 4고(四苦)로 표현되는데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이 그것이다. 사람이 이 네 가지 중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삶이 힘들어지는데, 노인의 경우 이것들 모두를 다 가지고 있던가 혹은 적어도 한두 가지는 갖고 있게 마련이다. 이를 복합위기(multiple jeopardy)라 한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노인문제를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노인이 되면 으레 그러려니 하고 치부하는 고정관념이 더 큰 문제이다. 노인에 대한 이러한 편견은 일종의 연령차별(ageism)로서 결국 노인마저 그 해결이나 개선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만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그리고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노인학대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노인들은 오늘의 변형된 우리를 있게 한 귀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들은 농경시대에 태어나서 정보시대에 황혼기를 보내는, 사회적으로 ‘분리된(disengaged)’ 인생들이다. 그들은 소위 ‘샌드위치 세대’로서 “위로는 해주고 밑으로부터는 못 받는” 허탈한 삶을 살고 있다. 오늘의 우리나라 노인들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특수한 상황에 처한 인구집단이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는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할 자원이 점점 고갈되는 법인데 사회는 이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여 노인들이 존엄성을 갖고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장수사회의 진척과 더불어 노인문제는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중산층의 일반노인에게도, 그리고 와상노인만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건강노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무병장수(無病長壽)하는 것은 모두의 축복이지만 반대로 적당한 소득도 없이 유병장수(有病長壽)하는 것은 모두의 불행으로 이어진다. 또한 인구고령화라는 동전의 뒷면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라는 심각한 경제사회문제가 있으므로, 고령화 사회는 노인복지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활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 정책적으로도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던진다.

그러나 이러한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에 비추어 우리사회의 대비책은 아직 미약하다. 그것은 아마 다음과 같은 이유일 것이다.

- ①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부족
- ②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의 미흡
- ③ 노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확대
- ④ 노인복지서비스의 사회적 효용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 ⑤ 노인 관련 연구(gerontology)의 미약
- ⑥ 노인복지 전문인력의 부족
- ⑦ 노인들 자신에 의한 권익향상운동의 부족
- ⑧ 민간자원 활용 미약

노인복지 문제는 다양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못지않게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 민간이라 하면 주로 기업과 종교기관을 의미한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종교기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차홍봉, 2004). 오래 전부터 교회는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해 왔다. 해방 이후 비록 외원(外援)기관이긴 하였지만 무의무탁한 노인을 위한 양로원과 요양원을 설립하는 데 교회가 앞장 서왔으며, 2004년 현재 351개의 노인복지시설(양로, 요양, 전문요양)과 366개의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과견) 중 60% 이상이 교회 혹은 기독교인이 중심된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972년 감리교회 사회복지재단인 태화사회복지관에서 시작한 노인학교는 그 후 각종 노인단체, 사회단체, 그리고 종교단체로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약 1,500개의 노인학교에 약 20만 명의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학교는 비교적 풍부한 재정지원과 신도들의 친절한 서비스를 받으며 많은 수의 노인들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인학교 프로그램은 다른 노인단체나 사회봉사단체의 것보다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신자와 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적절한 신앙지도와 함께 지역노인의 욕구에 따른 사회교육을 병행하고 있어 노인교육을 통한 노인복지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교회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 아마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아직 노인목회의 개념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제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맞이하기 이전에 노인목회의 개념이 정립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교회의 역할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노인목회의 개념정립이라는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논의를 간단히 시도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교회의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실천과제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전 생애를 통해 창조섭리에 따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원하신다. 노년기에도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후 4:16)”라고 한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가족과 이웃 및 사회의 배려 하에 죽을 때까지 존귀하고 아름다우며 또한 몸은 쇠퇴하지만 영은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교회는 우리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므로 말미암아 고령화 사회에서 선각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II. 정부의 주요 노인복지정책 검토

현 정부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 인구의 8.3%, 즉 노인인구가 400만 명을 넘는 상황과 함께 출범하였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만의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칠 것이 분명한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국가적 위기(national crisis)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른지, 아니면 늘 그래왔듯이 수없는 대책을 발표하기는 하나 그저 대증요법(對證療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선에서 지지부진할른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현 정부는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창의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정책도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공식적인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참고하여 현 정부의 주요 노인복지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1.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한 대응

1) 상호보완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립

우리나라 출산율은 1984년 인구대체수준인 2.1에 도달한 후 2003년 합계출산율 1.2로 저출산율 속도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결혼 및 가정생활의 가치관에 대한 변화에 기인하는데, 그 배경에는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자녀양육비 증가 등의 원인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저출산은 생산활동인구의 감소와 노인부양부담의 증가로 이어지며, 결국 교육, 주택, 연금, 국방 등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정부는 1960년대 이후 30년 간 추진해온 출산억제정책을 1996년 인구의 질 관리에 중점을 둔 '신인구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인구의 자질향상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출산장려정책으로의 이행기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출산장려와 노령화 사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는 사회경제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노인부양부담 및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로 인해 국가 생산성과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며, 개인적으로는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으로 고통받는 복합위기선상의 국민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인식 하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현상은 저출산과 맞물리면서 인구의 색깔을 청색에서 회색으로 변화시키면서 정치·경제·도덕적 위기를 야기하는 등 엄청난 파도를 일으킬텐데(Peterson, 2000), 아직 우리는 이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무방비 상태이고 둔감증에 걸려 있는 것이 문제이다. 저출산은 고령화 가속도와 부양부담 비율상승의 매개체이며, 고령화 대책 수립시 저출산 변수는 필수적인 고려사항이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과 고령화 대책은 상호보완관계 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체계적·구조적인 고령화 대책 수립

고령화 문제의 특징은 관련 영역이 광범위하고 해결을 위한 주체가 중첩될 수 있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고령화 대책을 추진하는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고령화 대책은 1991년 총리 자문기구로 노인복지대책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기구로 노인복지대책실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정부의 여타 자문위원회가 그랬듯이 “점심이나 먹고

보고나 듣는” 위원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1999년 정부의 기구축소 일환으로 노인복지 대책위원회는 폐지되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21세기 고령사회대비 보건복지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웠으며, 2002년에는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고령사회대비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을 세운 바 있다.

그동안의 대책은 정책입안자들이 사회조사통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였다고는 하나 전반적으로 수습행정(收拾行政) 혹은 구제행정(救濟行政)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즉, 그 시점에서 더 이상 불평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땀질식 처방 정도에 그친 감이 많이 있었다. 물론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의 경제논리에 밀려 계획수행을 위한 충분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긴 하였으나 예방적이고 좀 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항상 부족하였다.

선진국은 고령사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전문가, 노인 대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자, 정책입안자들이 한데 모여 보다 체계적인 고령사회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89년에 「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골드플랜)을 수립한 바 있으며, 미국에서는 1961년부터 10년마다 한 번씩 「노인대책 백악관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가 열리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이 위원이 되는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설운영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고령사회대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사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하도록 하는 등 다소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법으로 초안을 잡고 있다. 아직 이러한 제도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청사진이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어느 날 중앙에 몇 사람이 모여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하는 형식이 아니라 일정기간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 모두의 의견이 지방에서부터 수립되는 ‘밑으로부터의 계획(planning from the bottom)’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끊임없이 수정·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확실한 의지만이 이를 가능케 할 것이다. 이제 고령사회대책과 노인복지정책은 경로효친 정도의 사고방식으로는 어렵도 없는 보다 광범위 하고 전문적인 대책을 필요로 한다.

2. 노인소득보장 대책

1)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비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 공적연금제도, 공적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와 경로연금제도가 있다. 국민연금은 1,600만 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으나 낮은 성숙도 때문에 현재의 노인에게는 별 해당사항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으로 차상위 계층의 지원이 미흡하다. 결국 경로연금이 국민연금과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보완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로연금도 노인 수급권자와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급여도 월 3.5~5만 원으로 너무 낮아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유감스럽게도 국민소득 1만 불의 시대에 우리나라 대다수 노인의 주수입원은 자녀로부터의 보조이나(정경희 외, 1998), 그것도 핵가족화에 밀려 노인은 ‘3등 인생’으로 전락하였다.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이 가동하기 시작하는 2008년 이후 노인소득 구조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적소득보장체계 내에서 경로연금의 위상을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다만 공적연금을 한시적으로 보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보충하는 성격을 갖는 경로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현 정부의 노후소득보장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경로연금의 위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까지 경로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 노인 중 상위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노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국민연금수급자도 일정 수준 이하이면 대상으로 포함

시켜야 할 것이다. 선정기준에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가구 소득만으로 수급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결국 매년 경로연금의 목표인원과 예산범위가 정해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65세 이상 노인의 약 1/5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에 어떠한 중요성을 부과하느냐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2) 노인취업의 활성화

많은 연구에서 보여지듯, 노인들이 일자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소득과 함께 자기효능감 때문이다. 퇴직은 빨라지고 수명은 늘어나면서 인생의 1/3을 역할상실의 상태로 보내야 하는 많은 노인들에게 급여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의미있는 일자리를 갖는 것은 절대절명의 욕구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대부분 실효가 별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전국에 약 130개의 노인취업알선센터와 약 510개의 노인공동작업장, 서울시 소관으로 14개의 고령자취업알선센터, 그리고 노동부 소관으로 36개의 고령자인재은행이 노인취업을 알선하거나 소규모 공동작업을 주선하여 왔다. 노인의 창업 혹은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10여 개의 지역사회시니어클럽, 노동부가 주관하는 고령자 3% 기준고용률, 고령자 우선채용 77개 직종, 고용장려금 등이 있다.

그러나 노인취업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으로서 기업체에서는 노인인력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노인 자신들도 과거의 경력을 접어두고 땀흘리며 노동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이 없다. 쥐꼬리만한 돈을 받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하느니 차라리 공원이나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낫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즉, 그동안의 노인취업정책은 일을 통해 노인에게 자부심과 효능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좌절감이나 수치심을 주어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부각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노인취업정책의 패턴을 개선하여 노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국가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 안에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치하였다. 이 센터는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이 조직이 꼭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고령자와 노인의 구분: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고령자(혹은 노인) 취업정책은 고령자와 노인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함으로 그 적용대상이 모호하였다. 취업 욕구와 능력은 연령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50대 중·후반의 고령자는 노동정책의 틀로 접근해야 하고, 60대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 ② 능력개발 프로그램의 도입: 그동안의 노인취업은 취업에 적절한 노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주로 취업알선에 치중하였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 준비되지 않은 노인인력은 귀찮을 따름이다. 고령자 기준고용률이나 고용장려금도 비교적 젊은 고령자에게만 적용되었을 뿐이다. 이제는 노인의 능력과 기대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제도의 정비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사회적 일자리 창출: 그동안의 노인취업이 노인을 사회의 주변인으로 계속 머물게 하였다면 이제는 노인이 주류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인고용에 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필요로 한다. 노인에게도 보람을 주고 사회로서도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혁신적인 패러다임으로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구자순, 2002; 이원덕·장지연, 2002; 김동배·이윤화·안인경, 2004). 사회적 일자리란 이윤이 없거나

너무 적어 기업이 관심을 갖지 않는 영역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정부와 민간이 다양한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개발하면 상당한 고용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④ 노인취업에 관한 인식 개선: 노인취업에 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은 노동현장에서 그대로 부정적인 양상으로 드러난다. 노인취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물의 개발과 사회·문화적인 이벤트와 행사도 적절히 계획되어야 하겠다.

⑤ 노인능력개발공단의 설립: 노인취업은 많은 노인문제를 푸는 열쇠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인력운영의 개선’ 정도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담당하는 새로운 정부조직으로서 「노인능력개발공단」의 설립이 필요하다. 「한국여성개발원」이 그동안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어떤 기여를 하였는가 참고하여 볼 일이다.

3. 노인건강관리 대책

노인의 신체적 건강은 노인의 삶의 질, 노인을 모신 가족의 행복, 그리고 사회적 부담 측면에서 국가재정과 직결되어 있다.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은 사회를 복지사회라고 부를 수 없으며, 특히 향후 10년 내로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절반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의 건강관리와 의료보장의 문제는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의료보장의 가장 큰 문제는 전국민건강보험 하에서 의료제도가 노인에게 대한 차별성을 두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에는 안경, 의치, 보청기 등 필수적인 노인건강보조기구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재활 및 간호 등의 서비스가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농어촌의 의료기관과 전문의료인력의 부족한 점 등은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몇 년 전부터 노인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의료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노인보건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었는데, 정부는 이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인건강관리 대책으로 중요한 것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확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치매, 중풍을 포함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와상 및 거동불편 노인에게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가족문화를 고려하면서 환자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이다. 즉, 한국의 가족문화는 아무리 요보호노인이라 하더라도 가정 밖의 시설에서 요양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모시는 것을 선호한다. 요보호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와 가정보호 사이의 선택 문제는 고령화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데, 주간보호(day care)와 단기보호(respite care), 그리고 가정봉사원(home helper)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환자와 가족 간의 미묘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366개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국고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보다 적극적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적 지역사회보호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1994년 고령자 보건복지를 위한 「신(新) 골드플랜」에서 주간(晝間)보호소 17,000개를 설치하고 단기보호소에 60,0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봉사원 17만 명을 배치할 계획을 수립하였었다. 보건복지부나 지자체가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이젠 더 이상 경로당을 지을 것이 아니라 주간보호소와 단기보호소를 지을 계획을 세워야 하며, 뒤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경로당을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도 안으로 포함시키는 작업도 시도해야 할 것이다.

2) 실비시설의 확충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주로 절대빈곤계층을 위한 무료시설이었으며 최근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노인들을 위한 유료시설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사실 시설서비스의 욕구를 가진 노인 대부분은 유료시설에 갈 만큼 여유있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무료시설에 갈 정도의 빈곤층은 아니다. 향후 차상위계층 혹은 중간계층의 폭은 상당히 두터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 계층의 시설서비스 욕구 또한 증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일반노인들은 어느 정도의 입주비용을 감당하면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들을 위한 실비시설이 적극 개발되어야 하겠다.

정부는 재작년부터 기존시설의 개보수비와 운영비의 절반 정도를 지원하여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실비시설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즉, 실비시설의 운영자는 일정한 입소비용을 개인으로부터 수납하고 여기에 일정한 국고지원을 받아 최소한 무료시설에서의 서비스 정도는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비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그 정도의 국고지원을 받아 골치 아픈 실비시설을 운영하기보다는 차라리 비교적 편한 무료시설을 선호한다. 따라서 실비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즉, 노인에게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voucher)제도를 도입하거나, 입소비용을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을 두는 제도(sliding scale)를 도입하거나, 혹은 같은 비용을 수납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공적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

공적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급증하는 데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부는 2000년에 노인장기요양보호운영기획단을 설치하였고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최근 이 계획은 2010년 이후로 미루어졌다.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필수요소인데 현 정부는 아직 이 요소에 관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2004년 현재 전체 노인의 20.9%(83만 명)이며, 2020년에는 16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노인을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가 및 시설의 요양보호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중산서민층의 장기요양 욕구가 급증하는 데 비해 이를 수용할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용료 부담도 과중하므로 공적제도가 필요하다. 요양보호 비용도 급증하여 2003년 2.2조, 2007년 2.6조, 2020년에는 4.1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와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 제도는 모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체계,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의한 중층적 시스템, 요양보호 시설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단, 재원조달 방식을 사회보험 방식(독일, 일본), 민간보험 방식(미국), 일반조세 방식(영국, 스웨덴), 개인요양저축 방식(싱가폴, 홍콩)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좀 더 많은 연구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 방식을 택할 때는 본인, 보험자, 정부가 연대해서 비용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긴밀한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선우덕 외, 2001). 장기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된다 해도 현재의 노인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요양보호수가와 의료공급체계를 어떻게 구성할지, 서비스의 지역적 평준화를 어떻게 달성할지 등에 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연구와 시범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노인여가선용 기회 확대 대책

노인에게 있어서 여가의 개념은 재생산의 수단 또는 심신의 피로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젊은이들의 여가와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 한다. 노인여가정책은 소극적으로는 여가를 적절히 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와, 적극적으로는 여가를 어떻게 즐겁고 보람되게 보냄으로 인생을 의미있게 마무리 짓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노인의 여가활동은 ① 건강증진, ② 사회적 접촉과 사귀의 기회 증진, ③ 사기와 생활만족감 증진, ④ 신체적 및 정신적 자신감 증진, ⑤ 자기가치성과 자기유용성의 확대, ⑥ 자립성 향상이 이루어지고, 특히 ⑦ 재미있고 즐거운 삶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Leitner & Leitner, 1985).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가시설의 개선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노인여가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1) 경로당(노인정) 활성화사업의 효율성 향상

현재 전국에 약 48,000개에 달하는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며 전문가의 개입이 없어 단지 노인의 휴식공간 역할 밖에는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경로당에 참여하는 노인은 전체의 1/4 밖에 지나지 않고 3/4은 경로당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경로당의 한계를 잘 드러낸다. 정부는 44곳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경로당이 서비스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화사업을 시행하여 그 활용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시설보강과 운영비용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 특화사업은 기존의 경로당에는 참여노인들의 동의에 의해, 신설되는 경로당에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경로당 전체가 이 특화사업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혹은 규모가 큰 경로당의 경우 경로당 공간의 일부를 이 특화사업을 위해 할애할 수도 있을 것이다.

- ① 노인자원봉사센터: 노인의 여가생활에 있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데, 지역에 산재한 경로당이 지역사회의 여러 사회기관 혹은 지역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노인자원봉사센터로서 기능한다면 노인도 의미있는 여가를 보내면서 동시에 노인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 ② 노인 헬스센터: 건강은 노후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것에 비해 노인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과학적인 접근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노인 헬스센터는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위하여 운동도구의 설치와 이용,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영양과 약물에 관한 상담 등을 시행한다.
- ③ 노인주간보호센터: 치매, 중풍 등과 관련된 재가복지서비스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주간보호센터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동네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는 접근성이 좋으며, 지역주민과 격리되어 있지 않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 노인종합복지관의 증설

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회관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 시설은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노인복지회관과는 다른 형태로 분류되어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노인종합복지관은 그 효과성이 이미 입증된 만큼 지속적으로 증설되어야 하며, 또한 전문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체계적 교육과정, 인간관계의 역동성을 통해 의미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소집단 모임들,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을 젊은 세대에 올바르게 계승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시행하는 그룹들, 그리고 다양한 영역의 자원봉사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후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도울 수 있는 전문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 노인복지법에 규정은 있으나 사장되어 있는 ‘노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3)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활동은 노인들에게 사회적 유용성을 느끼게 하며 고독을 없애거나 의사소통을 잘 하게 하는 등 노년기를 풍요롭게 향유할 수 있는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노년기 자원봉사활동은 상실되었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아주 바람직한 활동이며,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를 위해서 적극 개발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이다(김동배, 1999). 현재 우리나라의 성인자원봉사의 비율은 대략 10%를 약간 상회하며, 노인자원봉사는 대략 2-3%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는 선진국의 성인자원봉사 30-40%, 노인자원봉사 20-30%에 비하면 훨씬 적은 비율이다. 노인 자원봉사는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에 큰 의의를 갖는 만큼 참여정부는 노인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는 원래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의해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노인자원봉사는 당분간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지원을 확대하고, 위에서 언급한 노인능력개발 사업의 한 분야로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노인복지서비스의 확대 및 통합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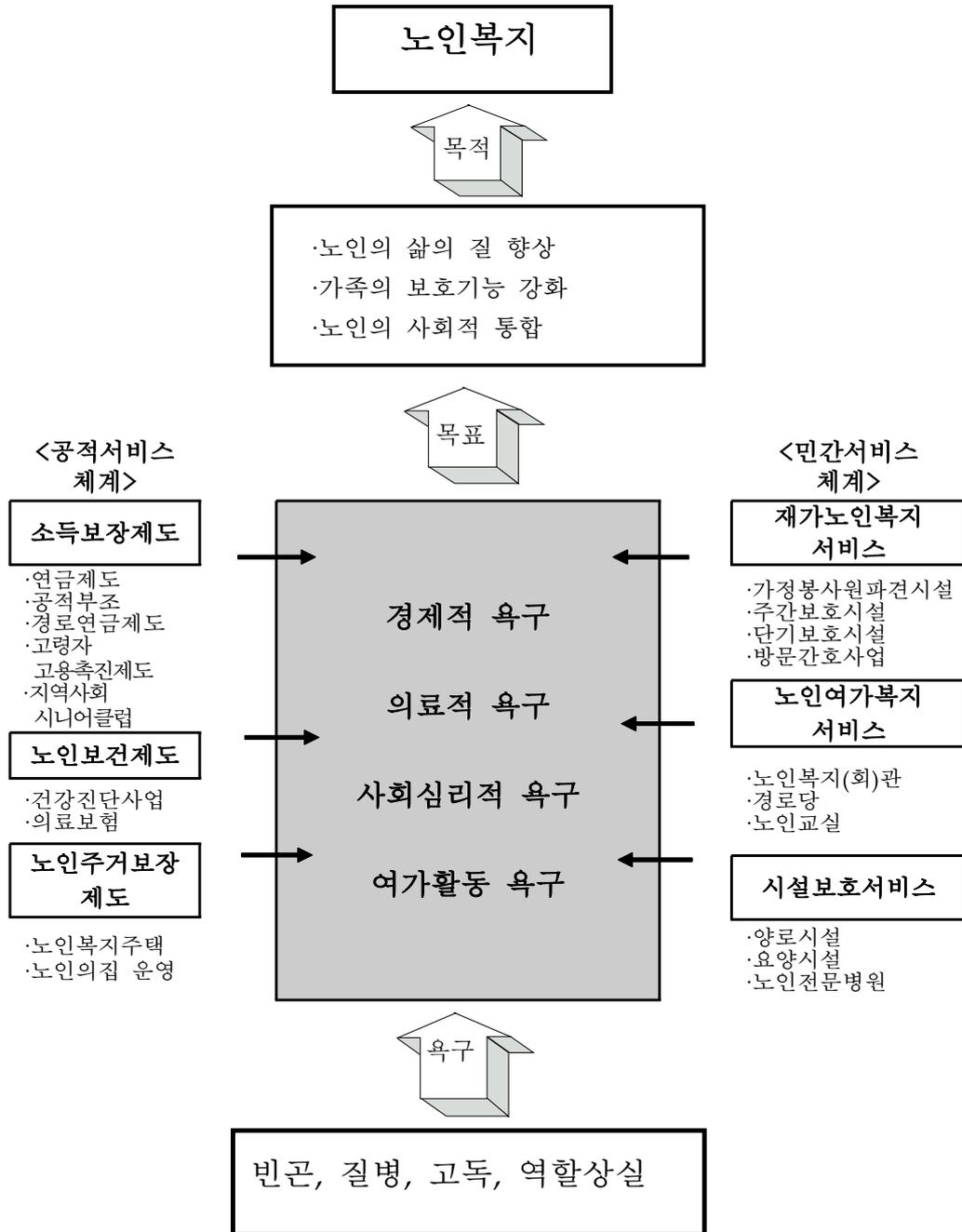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60대의 소득불평등은 30대의 1.4배로 측정되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30대에는 0.23이고 60대에는 0.32이었다. 이러한 통계치는 노후생활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정부의 노인정책방향인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보장’이 단지 구호나 구두선(口頭禪)으로 끝나지 아니 하고 실제 정책으로 입안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경제논리가 항상 복지논리를 패배시키는 틀을 벗어나야 하고, 노인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어야 하며, 나이가 국가 지도자들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노인이 되어간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적 연대성에 입각하여 노인복지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자원은 떨어지게 마련인데, 그렇다고 노인의 부양문제를 더 이상 가정을 중심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노인부양에 관한 가정의 능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식적(법령에 의해 설치된) 및 비공식적(민간의 자발적 참여정신에 의해 설립된) 자원이 노인부양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적 지역사회 보호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편, 노인이 단지 부양의 대상만이 아니라 사회적 발전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노인인력개발에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와 그 영향에 대한 대책은, 마치 교육을 만년지대계(萬年之大計)라 하듯,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 사회가 지혜를 모아 내놓아야 하는 또 하나의 만년지대계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사려깊은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노인복지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제도 중 공적 및 민간 노인복지 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서비스 체계는 노인들의 경제적, 의료적, 사회

심리적,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소득보장제도, 노인보건제도, 노인주거보장제도와 같은 공적서비스체계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시설보호서비스의 민간서비스체계가 연계되고 통합적인 체계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이러한 서비스 통합체계는 결국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노인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인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노인의 욕구를 중심으로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민간 노인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 체계를 <그림 1>을 통해 제시해 보았다(김동배·김유심, 2002).

< 1> 노인욕구 해결을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



Ⅲ. 노인의 기본 욕구 확인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 욕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Kaplan(1960)은 노인들의 욕구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는데, 노인복지 프로그램이라는 틀을 통해 노인은 자신 스스로가 혹은 주위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①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욕구
- ② 자신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 ③ 여가시간을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욕구
- ④ 정상적으로 동반자관계를 즐기려는 욕구
- ⑤ 개인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 ⑥ 자기표현과 성취감의 기회를 가지려는 욕구
- ⑦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욕구
- ⑧ 적절한 정신적 자극을 가지려는 욕구
- ⑨ 적절한 주거조건과 가족관계를 가지려는 욕구
- ⑩ 정신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

1. 노년생활에 있어서 보람된 삶의 6 요소

노인복지를 위한 계획가 또는 실천가는 우선 노년생활에 있어서 보람된 삶의 요소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노년기는 사회적 역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얻는 것일 수 있다. '제2의 경력' 혹은 '제3의 인생'이라는 말이 나타내듯이 노년기는 새로운 기회이며 새로운 권리와 책임을 발생케 한다. 가족, 친구, 이웃과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기며 새로운 의미에서 인생을 재출발 할 수 있다. 노년기는 인생에서 업적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 바라던 바를 여유있게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지혜롭게 계획하고 결심하기에 따라 노년기는 인생의 가장 축복받은 시기일 수 있고, 아니면 불만과 불평의 시기일 수 있다.

노년기의 사람들은 감소된 수입에, 축소된 사회적 역할에, 가족을 포함한 인간관계의 변화에, 그리고 약화되는 건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정한 사회적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허다하게 남아도는 시간을 어떻게 의미있게 보내야 할지 매우 당혹스러워 하기도 한다.

노인복지 전문가는 다음에 제시되는 보람된 노년생활의 여섯 가지 요소와 성공적인 노년생활을 위한 10가지 질문에 노인들이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① 건강관리

노화는 인생의 정상적인 과정의 일부분이다. 노화와 신체적 허약 혹은 질병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러나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를 이해해야 하며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영양, 위생, 청결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을 길들여야 한다.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성인병, 그리고 노인과 그 가족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중풍과 치매에 대한 예방과 치료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치료와 건강관리를 돕는 지역사회자원과 의료서비스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기억력을 유지할 개인적인 비법(秘法)을 개발해야 한다. 노인의 성기능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며, 성에 관한 부정적 선입관을 시정한다. 재혼의 가능성과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우울증이 자살로 연결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② 재산관리

연금을 포함하여 노년기 소득원천과 규모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은퇴 후의 소득과 예상되는 노후생활비를 평가하고, 소득을 올리고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일상적인 지출과 개인적으로 예상되는 특별지출을 고려하면서 재산운용과 투자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안정성·수익성·환금성을 적절히 적용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일은 항상 활력을 주기 때문에 재취업, 시간제 고용(part-time) 등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경로우대 및 노인할인제도를 포함하여 소비자로서 노인이 갖는 권리를 행사한다. 노인들이 보통 당하는 사기수법에 대해 주의한다. 연금의 사후처리, 유산상속 및 유산의 사회환원에 대해 계획을 수립한다.

③ 인간관계

장노년기의 심리적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자신의 심리적 특성과 가치관이 어떤 생활양식을 만들었으며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의 변화가 자기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한다. 노후에 부부·자녀·친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생각하며 그런 인간관계에서 새로이 조정해야 할 것을 탐구한다. 노후생활을 지지하는 자원의 고갈현상과 이를 보충하는 방법,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요령을 터득한다. 노년기 사회적 지위의 변화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이해한다. 자신과 타인을 속박하는 사고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발견하여 인간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주장력훈련(assertiveness training)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인간관계는 집단학습 혹은 집단상담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④ 주거선택

자녀와 동거 및 별거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관한 문제이다.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인주거시설(retirement housing)이 경제력과 건강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양로 및 요양시설을 포함하여 노인주택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노인주택의 입주가능성을 파악한다. 노인주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촉진 및 방해요인을 개인적·가정적·사회적으로 파악한다. 만약 지금 살던 집에서 이사한다면 주거선택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첫째, 위치·규모·가격이 중요하고, 둘째, 가족·종교·교우관계 혹은 재취업이나 자원봉사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셋째, 노화와 더불어 높아지는 의존성을 보완해 줄 각종 서비스와 위락시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⑤ 여가선용

노인이 갖고 있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유효 적절히 사용하면 노년이란 인생에서 아주 의미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인생을 회고해 보며 무엇을 정말 하고 싶었는지 혹은 배우고 싶었는지 검토해 보고 자기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여가선용 방법을 선택한다. 직업과 연관된 것을 찾을 수도 있고 익숙치 않은 새로운 형태를 탐구할 수도 있다. 취미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의 종류와 의미를 탐구하고 그런 일에 관계할 수 있다. 자원봉사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얻고,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사회적 조직(교육, 의료, 사회봉사, 시민운동, 문화예술 및 공공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집단활동이다. 즐겁고 의미있는 여가활동은 정신작용이 쇠퇴하는 것을 막음으로 정신적 노화를 예방한다. 집단여가활동은 회원상호간 양보와 타협, 그리고 협동정신을 필요로 한다.

⑥ 삶과 종교

이 주제는 사실 죽음의 문제이다. 죽음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금기시 되어 있으나 한번은 필히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죽음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태도를 이해하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수용하여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을 극복해야 한다. 말기환자를 다루는 호스피스 개념을 이해하고, 올바른 장의절차와 그 의미를 이해한다. 장기기증에 대해서도 이해한다. 배우자 사별을 포함하여 죽음에 대한 적응과정을 이해한다. 종교인이라면 이 주제를 종교와 결부시켜서 다룬다. 비종교인이라면 새로이 종교를 가질 가능성을 탐구한다. 죽음과 사후(死後)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⑦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10가지 질문

- a. 당신은 혼자서 즐기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가?
- b. 당신은 실내와 실외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취미가 있는가?
- c. 당신은 손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즐기는가?
- d. 당신은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가?
- e. 당신은 집단으로 참여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가?
- f. 당신은 종교단체에 속해 있는가? 참여는 어느 정도인가?
- g. 당신은 당신 연령의 사회집단의 구성원인가?
- h. 당신은 돈 혹은 자원봉사로 후원하는 단체가 있는가?
- i. 당신은 문화/복지/시민단체와 어떤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는가?
- j. 당신은 몇 년 동안 계속할 수 있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였는가?

IV. 교회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의 원리와 실천

1. 고령화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

우리나라 교회는 효를 중시하는 유교정신을 계승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노인에게 대한 보호와 봉사를 게을리 하지 않아 왔다. 해방 이후 비록 외국의 원조와 정부의 지원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양로원과 노인요양원을 세워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 거처가 마땅치 않거나 병든 노인들을 모시는 데 교회가 앞장 서 왔다.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고 노년층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교회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으나 사회 일반이 기대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교회가 노인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첫째, 교회는 복지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민간복지자원의 핵심이다. 인간의 복리는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사회복지의 주요 과제이었으나 복지국가(Welfare State)를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이제 국가, 개인, 사회가 동시에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국가가 아무리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을 강화한다 해도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는데 하물며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곳에서는 도처에서 노인문제가 불거져 나온다. 인간의 복지는 국가가 공적인 서비스를 통해 다 책임질 수도 없으며, 또한 국가가 직접 맡으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교회는 사적인 민간복지자원의 핵심으로서 인간의 복리향상에 의미있게 기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요소이다.

둘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다. 노인의 사회적 지위가

저하되고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는 현실에서 교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가난하고 병든 노인에게만이 아니라 사회적 주변인으로 치부되는 일반 노인에게도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회적 와해이론(Social Breakdown Theory)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노인은 일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노인 자신마저도 자기를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 노인은 거둬진 악순환의 결과 사회적으로 와해되어 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적응기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키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교회는 비교적 풍부한 물적 자원과 헌신적인 봉사자를 통해 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셋째, 교회는 건전한 노인문화 창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회의 노인복지 사업을 역사적으로 보면, 해방 이후 불쌍하고 가난한 노인을 위한 양로 및 요양시설 사업을 전개하다가 80년대 후반에 사회복지의 물꼬가 트이면서부터 노인대학을 설립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전국적으로 500여 개의 교회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회노인학교연합회’가 이들 노인대학의 운영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계에 이용시설로서 사회복지관 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아 교회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혹은 자원봉사센터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종교간에 경쟁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활동은 경제적으로 주로 중하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제력이 있고 활동성이 있는 노인도 사회적 무관심과 편견의 대상되는 현대사회에서는 교회가 이제 중상층의 노인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노인문화 창달과 노인권의 옹호를 위한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노인이 사회적 주변인에서 주류인으로 회복되는 데 교회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넷째, 노인에 대한 봉사와 선교는 노령화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다. 교회의 모든 봉사활동은 결국 선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는 선교적 봉사로 혹은 봉사적 선교로 이해된다. 노인을 위한 교회의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봉사활동은 우리사회를 휴머니즘이 높은 사회로, 기독교 정신이 널리 보급된 사회로, 결국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는 사회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건강한 노인만이 아니라 죽음을 목전에 둔 노인을 보살피는 것은 ‘인생의 의미 있는 마감’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이는 당연히 교회의 몫이다. 교회의 노인복지 활동이 교회 노인만이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노인들까지도 포함한다면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이 전해지고 이것은 결국 교회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노인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노권(老權: senior power)이 강화된다면 노인은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교회들의 노인복지사업의 현주소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허준수, 2001): ① 지난 반세기 동안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노인복지 분야 뿐 만 아니라 사회복지에 참여하거나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이 미미하다; ② 일반적인 노인복지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교회의 노인복지사업이 부족하다; ③ 교회 내외의 사회복지전문가를 활용한다거나 지역사회 전문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를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비전문가인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계획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 ④ 교단 차원에서 계획되고 운영되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드물고 개별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적 물적 차원에서의 자원이 부족하다. 여기에 몇 가지를 추가하여: ⑤ 노인 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보다 창조적으로 노년기를 영위하도록 돕는 사역이 미미하다; ⑥ 노인을 도움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뿐 노인이 도움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노인에 의한 교육과 봉사 프로그램이 미미하다; ⑦ 생을 마감하는 계절에 삶과 죽음의 의미를 성서 안에서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이 빈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을 위한 목회의 원리를 생각해보는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2. 노인목회의 원리

1) 성서에 나타난 老人觀

성서에 나타난 노인 관련 구절들을 일정한 주제에 맞추어 정리해 보면 그 주제는 ① 공경의 대상으로서의 노인, ② 지혜의 원천으로서의 노인, 그리고 ③ 돌봐 드려야 할 대상으로서의 노인이라는 3개의 큰 범주로 나뉘어진다(김동배, 1995).

① 공경의 대상으로서의 노인(창 20:12, 출 21:15-17, 레 19:3, 잠 17:9, 막 7:10-12, 롬 16:13, 골 3:20, 딤후 5:1-2, 토 10:11-12, 14:13(외경) 등)

부모에게 순종, 효도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 이것은 자녀들이 축복받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부모로서는 시부모와 장인장모의 구별이 없다.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

② 지혜의 원천으로서의 노인(창 21:1-8, 신 32:7, 삼하 19:31-39, 욥 15:7-13, 시 9:12, 시 92:14-15, 율 2:28, 고후 4:16, 딤후 2:2-3 등)

사람의 나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니 노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고독하게 지내도록 할 게 아니라 존경하고, 훈계를 경청하고, 그 지혜를 배워야 한다. 노인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계발하여 후손들에게 영적인 상담자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인도 단지 나이가 많은 것으로만 축복일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아래 의인의 삶을 살며, 자식과 후손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가정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③ 돌봐 드려야 할 대상으로서의 노인(사 46:3-5, 말 4:4-6, 딤후 5:4, 딤후 5:9-10, 롬 8:38-39, 약 2:14-17 등)

하나님의 뜻은 인생이 노년이 되어 죽을 때까지 평안히 지내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로서 서로 돕고 고통을 나누어야 한다. 노인도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사랑과 도움의 대상이다. 특히 늙은 과부들은 자식과 교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노인목회의 원리들

성서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여 교회에서 노인을 위한 봉사와 선교를 계획함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원리는 무엇일까? 노인은 아동이나 청소년과는 달리 그 욕구와 능력이 다양하다. 무심히 보면 노인은 대체로 신체적으로 노쇠하고 정서적으로 둔감하며 사회적으로 무기력한 점에서 비슷한 것 같지만 개개인은 그 어떤 연령층보다도 더 다양하다. 그래서 노인복지의 시작은 “노인은 다 다르다”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노인목회의 원리로서 제안될 수 있는 것이 있다.

Miller(1981)는 노인에 대한 종교적 교육을 위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노인목회의 한 원리로서 제시될 수 있다.

① 깨달음(awareness)을 위한 교육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조건 뿐 아니라 개인적 감정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삶의 한계를 두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노년이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가까이 다가와 있는 죽음의 느낌, 여생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안목, 젊을 때와는 다르게 느껴지는 몸의 기능들....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그 감정을 수용하게 만드는 것이 이 ‘깨달음’의 교육이 지향하는 바이다.

② 의지적 결단(intentionality)을 위한 교육

늙어감에 따라 맞게 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리고 노인들끼리 서로를 돌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노인들은 결정을 내리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의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되, 그 상황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돕는 것이 ‘의지적 결단’의 교육이 지향하는 바이다.

③ 일치성(coherence)을 위한 교육

이전세대 그리고 후세대의 삶과 합류되는 연속선상에서 삶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보다 큰 성취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해는 결국 하나님 말씀의 뜻과 능력을 알게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노인들은 아직까지 발휘하지 못한 억압된 잠재력과 놓쳐버린 기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기 쉽다. 그들에게 과거와 미래로 연결되는 자신의 삶의 연속성을 깨닫게 함으로써 자신의 세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일치성’의 교육이 지향하는 바이다.

④ 상호의존(mutuality)을 위한 교육

노인들의 모든 관계가 '서로 돌보는(caring) 공동체'로서 상호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심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노인들은 배우자와 친구들의 죽음에 의해서 그 교제의 폭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노인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육체의 질병 못지 않게 고독과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존엄성의 상실일 수도 있다. 노인들이 감수하기에 일면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는 하나님의 뜻 속에는 서로 더욱 사랑하라는 깊은 뜻이 숨어 있다. 즉,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이루진, 노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존엄성과 우정과 대화를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

고양곤(1999)은 교회 노인학교의 목표를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교회노인학교가 지역사회에서 모범을 보이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노인목회 원리를 설정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하다.

- ① **선교의 목적** :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노인들을 노인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 기독교의 진리를 깨달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한다.
- ② **봉사의 목적** : 교회가 앞장서서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 소외된 노인들을 도와주며, 건전한 인생관을 가지고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기회를 제공한다.
- ③ **교육의 목적** : 평생교육의 시대적 사명에서 교회가 앞장서서 지역노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적 과제를 수행함으로 사회교육 발전에 이바지한다.
- ④ **역할회복의 목적** : 노년기에 상실한 역할과 지도력을 회복하고, 사회적응을 활발하게 하며,

보람있는 생활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⑤ **건강의 목적** : 노인들로 하여금 무병장수 하도록 도와주며 각종 취미, 오락, 여행, 대화 등을 통하여 즐겁고 희망찬 생활을 하도록 도와준다.
- ⑥ **통합의 목적** : 교회내의 노년층을 노인학교에 동참시키므로 소속감을 가지고 노후에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교회생활을 열심히 계속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비신자 노인들을 신앙적 분위기로 유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교를 나누도록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www.pckso.net)는 2003년에 노인복지선교지침서를 작성 발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노령화 사회에서 교회가 노인복지선교사역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침을 정하였고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노인에 대한 문제가 더 이상 소극적으로 다룰 수 없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임을 밝힌 것으로 보여진다.

① 예배를 통한 노인복지선교

교회는 노인들이 예배의 참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순서에 소외되지 않고 순서의 담당자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교회는 감각기능이나 신체동작 능력이 약화된 노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필요한 편의시설, 보조장비, 비품 등을 제공하여 불편한 점이 없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노인전담 목회자를 두어 노인들의 예배인도는 물론 노인들의 가정심방, 병원심방, 신앙상담, 가정문제 그리고 노인의 죽음준비를 위한 상담과 장례식에 이르기까지 도와 줄 수 있는 담임목사의 동역자로서의 노인복지 전문사역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년에 최소한 일회 이상 노인들을 위한, 노인들에 의한 노인헌신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한다.

② 선교를 통한 노인복지선교

교회는 고령화 시대의 노년층 복음화를 특수선교영역으로 설정하여 선교전략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는 양로원, 요양원, 병원 등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까지도 선교 매체를 이용하여 그들을 복음화해야 할 것이다. 노인을 위한 선교는 노인에 의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노인이 훈련받고 지지받을 수 있다면 불우하고 소외받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 선교와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선교는 특별히 오랜 목회생활 후에 은퇴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은퇴목사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육을 통한 노인복지선교

교회를 통한 노인교육은 노인들을 위한 신앙교육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후생활을 더욱 행복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취감과 자기 실현을 높이기 위한 사회교육학적인 의미가 있다. 교회는 노인들의 영성훈련과 신앙성장을 위한 노년주일학교, 노인주간성경공부반, 노인대학 내지 노인학교, 노인연수 프로그램, 노인교사반, 노인선교반, 노인찬양대 등을 개설하여 노인들이 교회의 노인 교육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외국에 있는 노인학교와 자매관계를 맺어 노인 교육프로그램을 상호교환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 노인교육에 필요한 교재는 노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굵은 활자로 만들어야 하고, 시청각 교육에 필요한 각종 미디어자료와 기자재를 구비하여 활용함이 효과적이다.

④ 봉사를 통한 노인복지선교

교회는 교회에 속한 노인교우들과 지역사회의 노인들을 위한 그리고 노인에 의한 각종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교회의 노인봉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봉사사역을 담당할 교회의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봉사지도자를 양성하여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훈련, 배치, 점검, 보상, 평가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 교회에 노인간병 담당 전문봉사자를 두어 퇴행성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의료 및 간호봉사를 제공한다. 총회, 노회 또는 개교회에서는 전문직(예: 의사, 간호사, 교사, 사회복지사 등)에서 은퇴한 노인들을 선발하여 노인복지 프로그램 관리자로 교육시킨 후 각 교회 노인 프로그램에 배치하여 봉사하도록 할 수도 있다.

⑤ 친교를 통한 노인복지선교

노인들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소외되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내의 노인이나 지역사회 노인들이 세상적인 향락적 놀이문화와는 다른 차원의 건전하고 재미있는 오락프로그램과 친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친교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교회는 배려해 주어야 한다. 고령화 시대의 노인들은 배우자의 사별 이후에 오랜 세월을 혼자 살아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남은 생애를 더욱 의욕적으로 살아가며 행복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교회는 남녀노인들의 건전한 친교의 장이 되어 주어야 한다. 교회는 독거노인들의 건전한 이성교제와 재혼문제 그리고 성문제까지도 상담하고 도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고, 재혼의 기회를 얻기 위한 다양한 친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교회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의 실천원칙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많은 교회에서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많은 예산도 편성하고 헌신적인 봉사자도 확보하고 있다. 도대체 교회에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할 때 어떤 실천원칙을 가져야 하겠는가?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및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겠는가? 필자(1995)가 제시한 ‘노인문제와 교회의 역할’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육과 복지서비스의 혼합

변화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인은 끊임없이 학습해야 한다. 현대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남은 지식과 경험만을 고집하는 노인은 주위로부터 올바른 대접을 받지 못한다. 노인의 학습은 정신작용의 지체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노인은 대체로 다양한 욕구충족이 결핍되어 있으므로 학습을 위해 모인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교회노인학교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혹은 교회가 운영하는 요양원/양로원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노인교육을 시행하는 것 등이다. 교회는 노인을 위하여 교육과 양육의 역할(educational-nurturing role)을 맡고 있다(Kuhn, 1977)

② 신자와 비신자의 혼합

젊은이에 비해 노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많은 친구를 갖고 있다. 주로 전국에 있는 47,000여 개의 경로당과 200여 개의 노인회관이 그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신자, 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신자는 오히려 지역사회 내에

자신을 돌볼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찾는 데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교회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비신자에 대한 교회의 따뜻한 대접은 좋은 선교효과를 나타낸다. 지역주민을 신자와 비신자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사실은 신자와 미신자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대사회의 선교전략은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패러다임에서 일단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전도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김동배, 2001),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전략도 마찬가지이다.

③ 신체와 정신의 상호작용을 고려

인간은 본래 신체와 정신작용이 매우 깊은 상관관계 속에서 기능한다. 신체적 불편함은 곧 정신적 긴장으로 표현되고, 정신적 고통은 곧 신체적 이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질병과 죽음이 다른 인구계층보다 더 가까이 있는 노년기에는 이 관계가 더욱 긴밀해진다. 삶의 취약한 측면이 증가하는 노년기의 프로그램은 신체와 정신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한 프로그램 안에 이 두 요소가 서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다. 운동과 신체적 활동은 정신작용을 활발하게 하여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학습이나 문예창작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신체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프로그램에는 이 두 요소가 항상 포함되어 치료적 효과(therapeutic effect)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교회가 노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에는 노인의 영성을 자극하여 의미있는 죽음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④ 활동이론과 분리이론의 적용

노년사회학에서 가장 잘 인용되는 이론은 서로 상반된 위치에 있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과 분리이론(Disengagement Theory)이다. 활동이론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정도와 생활만족도는 긍정적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성공적인 노년기를 위해서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 이를 활발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리이론은 노화현상과 더불어 사회가 노인을 분리하며 동시에 노인도 사회로부터 은퇴를 원하게 되므로, 노인의 사회적 은퇴는 당연하고, 사회화가 잘된 노인일수록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있게 된다는 것이다. 노인집단 안에는 다양한 특성의 노인들이 있어서 어떤 노인은 활동이론에 맞고, 어떤 노인은 분리이론에 더 맞는다. 한 노인에 있어서도 어떤 때는 활동이론에 의한 활동을 선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리이론에 의해 칩거하기를 원하기도 한다. 따라서 노인집단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구성원 모두가 다 참여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아주 활동성이 적은 집단에서부터 아주 활동성이 높은 집단까지 집단을 분류해서 그 집단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활동이론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예로는 활동적인 서클활동이나 자원봉사가 있고, 분리이론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예로는 회상기법(Reminscence Therapy)이나 혼자서 즐기는 취미생활 등이 있다. 아마 교회에 출석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활동이론에 적합한 노인들일 것이다. 교회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친교 및 봉사활동에 노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⑤ 노인과 젊은이의 혼합

어떤 조직에 노인끼리만 모이면 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낙인(stigma)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위문화론(Subculture Theory)에 의하면, 노인들은 타 연령집단을 배제하고 노인들끼리만 상호작용하려 하고, 그러한 노인들은 그들 집단에 맞는 규범과 가치관을 창출해 낸다. 이러한 노인문화는 성, 연령, 인종, 사회계층에 따른 다양성을 약화시키며 노인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만약 그러한 정체성이 젊은층과 차별되면 노인집단은 곧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활동은 때때로 어린이, 청소년, 장년 등 다른 연령층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대간 교육이나 젊은이와 함께 하는 집단활동이 권장된다. 교회에서도 연령별 선교회 모임만이 아니라 연령통합적인 모임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⑥ 다양한 자조집단의 개발

자조(自助: support, mutual-help, self-help)집단은 첫째,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 정서적 지지를 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느끼는 불안, 좌절감, 죄의식 등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벗어나 구성원들이 서로 이해 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둘째, 실질적인 도움으로서 정보, 경험, 자원을 교환하고 셋째, 자신들을 위한 뿐 만 아니라 자기들의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권익옹호자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교회는 사람들이 문제를 호소하고 도움을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한편 성장과 치유를 위한 곳이기도 하다. 노인의 자조집단은 노인의 자율성을 높여 성공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한다. 특수한 선교방향, 취미생활, 질병관리 등 공동의 주제로 모이는 노인모임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이 전문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일반노인까지 복지대상을 확대하고 가정을 중시하는 재가복지정책으로 변화하면서 그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재가복지, 의료, 교육, 여가활동 등의 노인문제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로서 노인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관 건립도 증가하고 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사업은 상담을 포함하여 재가복지사업, 사회교육사업, 기능회복사업, 복리후생사업, 상담사업, 지역복지협동사업 등의 기본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경로당활성화사업, 단기보호사업, 고령자취업알선사업 등의 별도의 단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인종합복지관에 참여하는 중산층 노인의 욕구에 맞추어 자원봉사단이나 창업팀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 내용에 따라, 그리고 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능력에 따라 위에서 제시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의 원칙이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는 상이할 것이다.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의 기본사업의 틀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1> 노인종합복지관의 기본사업

사업구분	사업내용
1. 상담사업	◦이용상담, 생활상담, 법률상담, 전문상담,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 등
2. 재가복지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재가노인지원사업 : 주권환경개선서비스, 방문간호사업, 건강영양식배달사업, 재활기구지원사업, 밀반찬배달서비스, 도시락배달서비스, 재가대상노인 사례관리 ◦주간보호사업 : 중풍, 치매어르신 보호 및 기능강화 훈련
3. 사회교육사업	◦교양교육 : 서예, 한글, 영어, 일어, 컴퓨터교실, 교양강좌 등 ◦건강증진 : 건강체조, 에어로빅, 요가, 수지침, 스포츠댄스, 생활체조, 탁구교실, 발건강교실, 건강강좌 등 ◦취미여가 : 포크댄스, 레크레이션, 가요교실, 합창반, 한국무용, 민요교실, 장고교실, 종이접기, 포켓볼, 오색점토, 신문지공예, 한지공예
4. 기능회복사업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진료실 : 전문의 진료, 건강체크, 보건교육, 치매검사, 건강교실
5.	◦자원봉사자 모집, 관리 및 육성 ◦홍보사업 ◦결연, 후원사업 ◦조사연구사업 ◦Food Bank지원사업 ◦공동작업장 운영
6. 복리후생사업	◦경로식당 운영 ◦이미용실 운영 ◦목욕서비스 지원 ◦세탁서비스 ◦셔틀버스 운행

V. 결론: 아름답고 의미있는 노년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탐구하기 위해 먼저 현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고, 노인의 기본적 욕구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그러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교회가 떠맡아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고속으로 달리는 노령화 사회에서 정부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요구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기대만큼의 노력을 경주할 수 없는데, 급증하는 노인복지 요구의 일정 부분은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현대사회가 교회에 기대하는 일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 일을 통해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노년의 의미는 인생주기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 해방되어서 마음을 확대시키고 인생과 세상을 관조할 수 있는 다시없이 좋은 기회라는 데 있다. 이 시기의 인간은 좀 더 넓고 시원한 쪽으로 진보할 수도 있고 좀 더 좁고 답답한 편으로 밀릴 수도 있다. 폴 튜니어는 “흠모할 만한 노인이란 넓게 마음을 열고 이해력을 가지고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을 발휘하며, 관대하고 진실하고 흠모할 만하고 질투가 없고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아무 것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지만 생명의 위로와 격려를 주려는 것 같은 사람이다”라고 한다(주선애, 1995에서 재인용). 아름다운 노인이란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많은 인간에게 관심을 기울여 하지 않는 풍요한 노년을 말한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고 모든 이해관계에서, 욕심에서부터 해방된 풍요로운 유모어 감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말년에 풀 한 포기 즐거기며 새로운 진리를 터득하며 항상 새롭게 느끼며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승리로 수용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의 노화라 할 수 있으며(주선애, 1995),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아름답고 의미있는 노년을 위해 기도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인에 대한 교회의 역할은 Mayeroff(1972)가 ‘돌봄의 목회(caring ministry)’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제안하였듯이 노인의 가능성과 제한성에 관한 지식을 갖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경청과 관용으로 인내하면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특히 그들 자신이 불투명한 미래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격려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아름답고 의미있는 노년’이란 어떤 것일까?

첫째, 의존적인 노인이 아니라 독립적인 노인이다. 신체와 정서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인은 타인에게 의존적이기 쉬운, 때로는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는데 의존성이 높은 노인은 가족이나 주위의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존경, 그리고 인격적인 대접을 받기 어렵다. 건강한 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록 그가 병약하여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노인은 품위를 지키며 자기의 신변과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노인 스스로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존적/수동적인 노인이 아니라 독립적/능동적 노인 상(像)은 교회노인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닫힌 노인이 아니라 열린 노인이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노인은 폐쇄적이고 고집스러운 자세가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자녀, 젊은이, 새로운 친구를 자기의 주관으로만 보면 불만과 불평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노인은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에 잘 적응하며 오히려 그 변화를 즐길 수 있다.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노인은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주의 문화가 아직 강하게 남아 있는 사회에서는 관심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다.

셋째, 받는 노인이 아니라 주는 노인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노인은 주위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상이 되기 쉽다. 도움을 받는 데 익숙한 노인은 결국 사회적 主流로 인정되기 어렵다. 노인이 갖고 있는 자원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자원을 갈고 닦아서 사회에 유익한 자원으로 전환할 때 노인은 사회적으로 유용성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역할을 찾아

드리는 것, 그리고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큰 부담 없이 노인들에게 사는 재미와 의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길이다.

위에 정리한 세 가지 관점은 교회가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본 원칙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삶을 사는 노인은 젊은이들이 봐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것이다. 젊음의 아름다움과 노년의 아름다움은 그 질에 있어서 다르다. 오히려 장년을 통해 노년에 이르도록 이러한 특징을 잘 개발한 사람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하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완성하는 길을 걷는 것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양곤(1999), “교회노인학교운영의 활성화 방안”, 『세계노인의 해 기념세미나』 자료집.
- 구자순(2002),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여성퇴직자 사회참여”, 『여성의 은퇴와 사회적 역할』, 대한은퇴자협회 주최 포럼, 56-57.
- 김동배(1995), “노인문제와 교회의 역할”, 『기독교와 사회복지』, 한국기독교사회복지회 문고 1, 도서출판 예안, 144-176.
- 김동배(1999), “미래사회와 노인여가활동”, 『미래사회와 노후생활』,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노인복지정책연구총서, 15, 51-100.
- 김동배(2001),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 사례 - 미국의 경우”,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하고 실천하기』, 대한기독교서회, 158-178.
- 김동배·김유심(2002), “한국 노인복지 행정체계 개선방향”, 『연세행정논총』, 27, 87-113.
- 김동배·이윤화·안인경(2004), “노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1, 107-127.
- 김성순(1990), 『고령화사회와 복지행정』, 弘益齋.
- 서병숙(1991), 『노인연구』, 교문사.
- 선우덕 외(2001), 『노인 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이원덕·장지연(2002),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정책”, 『고령화 시대의 사회정책 장기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여성개발원 공동주최, 47-86.
- 정경희 외(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선애(1995), “교회노인교육과정”,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노인교육목회연구시리즈, 한국장로교출판사, 81-98.
- 차흥봉(2004), “한국의 노인복지정책과 종교사회복지의 역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불교복지문화연구소, 제2회 사회복지 학술세미나 발표집, 3-18.
- 한준상(1999), 『21세기 한국노인교육의 장기정책발전방안 연구』, 1999년도 교육부 교육정책 연구과제의 지원에 의한 연구.

허준수(2001), "교회에서의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사랑의 교회 사회복지 재단 한국교회 사회복지사연구소 공동 주관, 『제 1회 교회사회사업 아카데미』 자료집.

Kaplan, M.(1960), "The Use of Leisure", in C. Tibbits(ed.),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Chicago University Press, 407-443.

Kuhn, Maggie(1977), *Maggie Kuhn on Aging*,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Leitner, M. J. & S. F. Leitner(1985), *Leisure in Later Life*, Binghamton, NY: Haworth Press.

Mayeroff, M. (1972), *On Caring*, NY: Harper & Row.

Miller, Donald E. (1981), "Adult Religious Education and the Aging", in William M. Clements(ed.), *Ministry with the aging*, San Francisco: Harper & Row, 235-244.

Peterson, P. G.(2000), *Gray Dawn*, 강연회 옮김(2002), 『노인들의 사회, 그 불안한 미래』, 에코리브르.